



미 증시, 파월의장의 완화적 발언에 상승

미국 증시 리뷰

1 일(수) 미국 증시는 FOMC 결과를 기다리며 하락 출발했으나, FOMC 에서 시장 예상대로 25bp 인상을 결정하고 파월의장의 완화적 발언이 이어진 영향으로 상승 마감(다우 +0.02%, S&P500 +1.05%, 나스닥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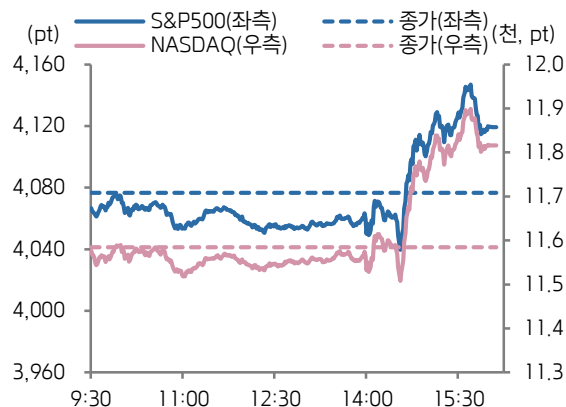
FOMC 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 단행하며 금리 레벨 4.50~4.75%로 결정, 전월 50bp 인상에 이어 인상 속도조절 감행. 이후 이어진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지만 아직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금리인상을 중단하는 건 생각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에 금리를 인하한다는 건 시기상조" 라고 언급하며 긴축 스탠스 유지. 그러나 "앞으로 2 회 정도 더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발언에 시장은 금리 인상이 곧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 또한 "처음으로 인플레이션 완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과 서비스 부문에선 그런 기미가 뚜렷이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인 발언에서 상품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사실에 주목하며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

미국 1 월 ADP 취업자수는 10.6 만명(예상 19 만명, 전월 25.3 만명) 기록하며 예상치를 큰폭으로 하회. 레스토랑, 호텔 등 접객부문에서 9.5 만건, 금융 서비스 3 만명,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서는 1.2 만명 증가했으나 무역, 운송, 유틸리티 부문에서 약 6 만명 가까이 감소. 집계측은 "일자리 감소에는 극심한 눈보라 및 홍수 등이 계절적 영향에 기인하기 때문에 고용 성장이 둔화된 것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

미국 1 월 ISM 제조업지수는 47.4(예상 48.0, 전월 48.4) 기록하며 하락, 3 개월 연속 50 선 하회하며 위축 국면 지속. 신규 주문지수는 12 월 45.1 에서 42.5, 생산지수 48.6에서 48.0, 고용지수 50.8에서 50.5 으로 하락하며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것에 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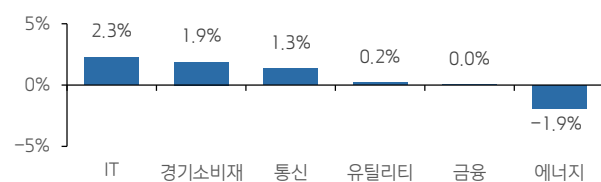
업종별로 IT(+2.3%), 경기소비재(+1.9%), 통신(+1.3%) 업종 강세, 에너지(-1.9%), 금융(0%), 유틸리티(+0.2%) 업종은 약세. AMD(12.63%)에 대해 23 년 데이터센터 사업 성장을 근거로 투자 의견이 상향조정된 영향으로 급등, 엔비디아(7.2%), 마이크론(3.81%), AMAT(6.74%) 등 주요 반도체주 동반 상승하며 IT 섹터 강세 주도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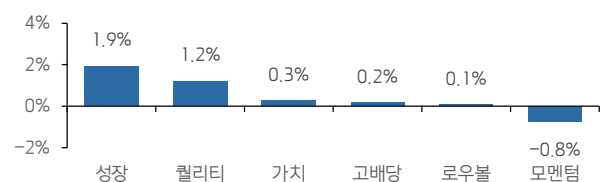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을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2023년 2월 2일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Strategist 한지영 02)3787-5241 hedge0301@kiwoom.com
Market 김지현 02)3787-3761 jeehyun12@kiwoom.com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449.80	+1.02%	USD/KRW	1,231.85	-0.02%
코스피 200	321.19	+1.24%	달러 지수	101.15	-0.93%
코스닥	750.96	+1.41%	EUR/USD	1.10	+1.17%
코스닥 150	1,045.49	+2.34%	USD/CNH	6.72	-0.54%
S&P500	4,119.21	+1.05%	USD/JPY	128.96	-0.87%
NASDAQ	11,816.32	+2%	채권시장		
다우	34,092.96	+0.02%	국고채 3년	3.270	-4.5bp
VIX	17.87	-7.89%	국고채 10년	3.242	-3.8bp
러셀 2000	1,960.81	+1.49%	미국 국채 2년	4.108	-9.3bp
필라. 반도체	3,073.47	+5.19%	미국 국채 10년	3.417	-9bp
다우 운송	15,197.91	+3.75%	미국 국채 30년	3.565	-6.7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171.44	+0.19%	WTI	76.7	-2.75%
MSCI 전세계 지수	648.37	+0.69%	브렌트유	83.05	-1.7%
MSCI DM 지수	2,785.00	+0.93%	금	1966.9	+1.11%
MSCI EM 지수	1,031.50	-1.2%	은	24.1	+1.09%
MSCI 한국 ETF	65.11	+2.58%	구리	418.25	-1.0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2.58%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2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40%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21.05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10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2월 FOMC 결과가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2. 원/달러 환율 속락이 외국인 순매수에 미치는 영향 3. 메타의 시간외 주가 폭등이 국내 성장주 투자심리를 개선 시킬 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2 월 FOMC 의 시사점에 대해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연준에서 금번 긴축 사이클 진행과정에서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해 언급을 했다는 점이 장 증반 이후 시장의 환호를 유발했으며, 1 월 CPI(14 일)까지 매크로 상으로는 중립 이상의 증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

금번 FOMC 에서 연준은 만장일치 하에 25bp 인상을 단행했으며,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향후에도 두어번 정도(couple of more) 인상을 더 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긴축 정책을 시사함. 또한 인플레이션과 싸움에서 승리를 했다고 선언하기에는 이르며, 인플레가 완전히 잡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 동시에 성급하게 정책을 전환할 때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등 발언과 성명서 곳곳에서 매파적인 색채를 드러냄.

하지만 이전 FOMC 들과는 달랐던 점은 상품가격 측면에서 디스인플레이션이 시작됐다고 언급했다는 점임. 그동안 연준에서는 (승리 선언은 이르다고 말해왔음에도), 인플레이션이 하락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 해왔던 것은 사실이나, 22 년 이후 긴축 사이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디스인플레이션” 표현을 사용한 것. 이는 연준도 본인들의 긴축이 유발한 수요 위축 사태로 인해 상품을 중심으로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음을 시사.

결국 1) 50bp 인상에서 25bp 인상이라는 감속, 2) 디스인플레이션 언급, 3) 같은날 발표된 1 월 ISM 제조업 PMI 부진(47.4, 컨센 48.0) 등 경제지표 둔화의 조합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긴축의 끝이 임박했고, 연내 금리인하도 가능하다”라는 베팅을 하게 만들었던 것으로 판단. 현재 CME Fed Watch 상 올해 최종금리는 5.0%, 연말 금리는 4.5%로, 연준의 이야기와는 달리 현시점에서 1 회 추가 인상 후 연말까지 2 회 금리인하(25bp 씩)가 컨센서스로 형성되어 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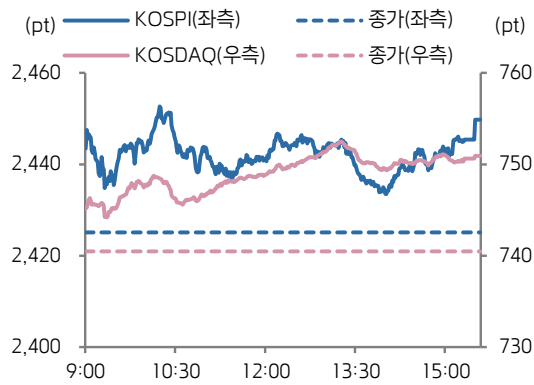
금번 FOMC 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재료를 제공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연준이나 시장 참여자들 모두 향후에도 계속해서 지표 및 데이터 의존적인 대응을 해야한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 일단 14 일(한국 시간 화요일)에 예정된 1 월 CPI(컨센서스 6.4%, 전월 6.5%에서 “디스 인플레이션” 전망이 강화될 수 있는지가 관건(ISM 제조업 PMI 내 가격지수가 전월 39.4 에서 44.5 로 상승했다는 점도 참고해볼 필요). 그때까지는 매크로 상으로는 증시에 중립 이상의 환경을 조성될 것이라 고 판단. 다만, 추가 측면에서는 금일을 포함해 최근 연속적인 랠리에 따른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기에, 상승기류에 공격적으로 올라타는 모멘텀 플레이보다는 차익실현을 일정부분 해나가는 것이 적절한 대응 전략이라고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1 월 수출 쇼크(-16.6%YoY, 컨센 -11.3%), FOMC 경계심리에도, 미국 임금인플레이션 둔화 기대 속 외국인 순매수 등에 힘입어 상승 마감(코스피 +1.0%, 코스닥 +1.4%).

금일에도 덜 매파적이었던 2 월 FOMC 이후 미국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 급등 호재, 원/달러 환율 하락(역외 -11 원) 등에 힘입어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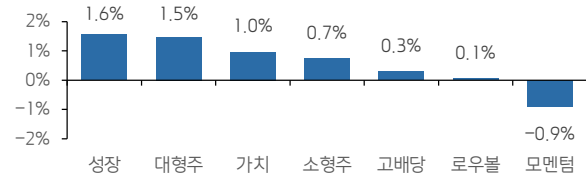
미국 장 마감 후 메타(+2.8%)가 양호한 분기 실적 및 400 억달러 자사주 매입 발표 등으로 인해 시간외에서 주가가 18%대 폭등하고 있다는 점은 국내 성장주 및 자사주 테마주들의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또한 한국 1 월 반도체 수출이 -44.5%(YoY) 대폭 부진, 삼성전자의 인위적 감산 미이행 여파가 남아있긴 하지만, 마이크론(+3.8%) 등 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5.2%)가 매크로 이슈에 힘입어 급등했다는 점은 국내 반도체주에도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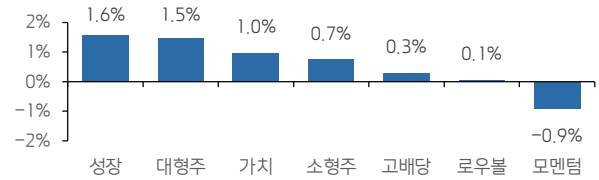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Quantiwise, Fnguide,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